

## The Complicated business of saving the Oceans

**Mark Kurlansky**  
**Journalist**

### Abstract

The basic problem of the oceans as explained by Charles Darwin.

The cataclysm that could happen. Why zooplankton win and fin fish lose. Why coral reefs are the rain forests of the ocean.

The role of fishermen and the problem of regulators. Blaming fishermen for the mistakes of regulators.

The evidence that it is a lot more than overfishing

Pollution both oil and plastic and chromium and mercury and PCBs.

The danger of off shore drilling and why it will get more dangerous.

The huge quantity of plastic in the Pacific Ocean and its impact on fish

June is the warmest month of the year for the world's oceans. This June was the warmest June for the oceans since the mid-19<sup>th</sup> century when this measurement was first taken.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for the life of fish. The problem of spawning, migration, a lower salinity and chemical changes to the sea

We need a broader perspective. IT is not about the cod or the Bluefin tuna or overfishing or climate change if cod is declining and haddock is prospering haddock is in trouble. Even without fishermen fish will not prosper if the ocean is too warm. It is about the management of an ecosystem with its inter related parts.

## 해양 지향적 복합비즈니스

### 마크 쿨란스키 저널리스트

#### 요약

찰스 다윈이 역설한 바와 같은 해양의 근본적인 문제점. 왜 동물성 플랑크톤은 승리하지만 물고기는 패배하는가? 왜 산호초가 바다의 우림이라 불리는가? 이러한 해양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어부의 역할과 규제기관의 문제점. 규제기관의 실수로 인해 어부를 비난하는 현실. 어부의 남획보다 유류, 플라스틱, 크롬과 수은 그리고 PCBs등 규제기관의 잘못이라는 더 많은 증거가 있다.

해양굴착의 위험성. 왜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인가? 태평양에 버려진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이것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어류의 생태에 미치는 함의는 무엇인가?  
19세기 중반, 최초로 해수온도를 측정한 이래 6월의 수온이 가장 높다.

전 세계 바다의 수온이 가장 높은 때는 6월이다. 어류의 산란, 이동. 그리고 해수의 낮은 염도와 그로 인한 화학적 변화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류의 남획 또는 기후변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대구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해덕의 개체가 증가한다면 그것은 해덕에게 문제가 된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 어부가 사라져서 남획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류의 개체수가 증가하진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해양 생태계와 그 내부의 연관에 관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